

전기차 배터리 이상 감지되면 소방차 바로 출동



국토교통부, 현대차그룹 등 완성차업체와 시범사업 소방청 협업해 화재 대응체계 구축...국제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BMW코리아와 손잡고 오는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 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화재로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해 전기차 화재 대응 적기를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자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일환으로, 현대차·기아, BMW코리아 등 주요 완

성차업체가 참여한다.

대상 차량은 총 4만여대로, 현대차 1만대, 기아 1만대, BMW·미니 2만대 등이 포함된다.

신고 체계는 전기자동차의 운행·충전·주차 중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고전압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고객센터에 자동으로 알린 후 한할지역 소방서에 우선 신고하도록 구성된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연락처, 차종, 위치 등 차량 정보가 자동으로 전달돼

119 소방대원이 바로 출동, 화재 진압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차량 소유자에게도 유선과 문자 알림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의 화재위험 상황을 안내하게 된다.

시범 기간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방청과 완성차업체는 '전기차 화재 현장 대응 매뉴얼'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실증 데이터를 분석해 전기차 안전성 국제기준 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CONOMY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광주상의, 공공조달 실무교육

전자입찰 등 활용도 제고 강조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시와 함께 최근 청사 대회의실에서 ㈜플러스 이상민 상무 이사를 초청해 '2025년 공공조달 실무교육'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조달시장은 2022년 196조원 규모, 국내총생산의 9.8%에 달하는 거대시장이다. 지난 2018년(141조원) 대비 39% 증가했다.

조달업체수는 2018년 40만915개사에서 지난해 57만2118개사로 42.7%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 중소기업은 정보 및 관련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포함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상의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전자입찰 및 다수공급자에게에 대한 활용 및 이해도 제고를 통해 경기침체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공공 및 민간 입찰에 대한 낙찰률과 공공조달 납품 기회를 높여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지역 기업체 임직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전자입찰 실무교육, 2부 다수공급자에게 실무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투찰금액 산정 및 낙찰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등을 안내하며 참여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한편 광주상의는 지난 2010년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사업과 다수공급자에게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6000여개 기업이 약 1조원 규모의 낙찰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실적을 기록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현대차그룹, 차세대 하이브리드 공개

2개 모터로 성능 개선...시동·발전·구동 담당 P1 모터 추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을 맞아 하이브리드차(HEV)가 주목받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2개 모터에 기반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처음 선보였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서울 중구 '크레스트 72'에서 '동력과 효율의 완벽한 조화, 하이브리드 그 이상의 전동화 경험'이라는 주제로 테크데이를 개최하고 이를 공개했다.

해당 시스템은 2개 모터가 내장된 신규 변속기에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조합할 수 있어 차급과 관계없이 성능과 연비를 개선했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새롭게 개발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변속기는 구동과 회생 제동을 담당

하는 구동 모터(P2) 외 시동과 발전, 구동력 보조 기능을 수행하는 신규 모터(P1)가 새롭게 내장돼 'P1+P2 병렬형 구조'를 완성했다. 여기에서 변속기 허용 토크가 기존 37.4kgf·m에서 46.9kgf·m로 25% 향상돼 고배기량 엔진과의 결합 시 최대 토크의 구현성이 높아졌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기반한 첫 파워트레인으로 가솔린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개발했다.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은 P1 모터가 엔진의 시동·발전을 담당하게 되면서 메인 벨트, 알터네이터, 에어컨 컴프레서 등이 제거됐고, 그 결과 차량 구동 외 분산되던 동력 손실이 최소화됐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현대차그룹은 최근 서울 중구 '크레스트 72'에서 '동력과 효율의 완벽한 조화, 하이브리드 그 이상의 전동화 경험'이라는 주제로 테크데이를 개최하고 2개 모터에 기반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처음 공개했다.

농어촌공사 전남대, 농촌 디지털 혁신 '맞손'

인공지능·데이터 등 상호 협력 업무협약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전남대학교와 '인공지능·데이터 및 정보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데이터, 정보보안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어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협의회 자문 참여 등 전문가 공동 활용, 관련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 대학생 진로 탐색과 취업 활동 지원, 데이터 사이언스 등 공동연구 기획 등 실질적인 협력 과제가 담겼다.

농어촌공사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RC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한 이후,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국민,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데이터 공유, 협업 범위를 넓혀 가는 등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협약 역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 공사는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전문 인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왼쪽)과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력 양성과 정보 교류를 본격화하고,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등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 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지역 중기 디자인경쟁력 강화 '온힘'

광주디자인진흥원, 제품 개발·상품화 지원...내달 접수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지역 디자인 전문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육성을 통한 미래 시장 선도를 위해 대대적인 기업지원에 나선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역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제품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2025년도 기업 디자인지원 통합고'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다양한 산업군의 중소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 디자인 개선, 상품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목표다.

광주시가 시행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지역 우수 기업 및 제품의 낙후된 디자인을 개선, 시장경쟁력 향상과 국내·외 시장 확대를 지원한다.

지원은 총 3개 프로그램과 1개 아이디어 발굴 사업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 디자인 선진화 지원, 디자인기업 브랜드 상품 개발 지원, 제품 디자인 개발·개선 지원, 선행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등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단순한 디자인 개선을 넘어 제품 기획, 자체 상품화, 마케팅 지원, 시제품 개발, 사용성 검증, 지식재산권 확보, 아이디어 발굴 및 확산화 연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

르는 실전형 지원으로 구성됐다.

통합공고를 통해 지역 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는 물론, 지속 가능한 상품 개발을 통해 광주의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13일까지이며, 이메일(sanup@gdc.or.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남권 소재 중소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제조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디자인기업의 자체 브랜드 상품화, 디자인 전문기업과 제조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 미래 가능성 높은 디자인 아이디어 발굴까지 폭넓게 지원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양제철소-여수해양수산청

합동 항만안전 정기교류회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최근 제철소 교육관에서 여수해양수산청과 함께 2025년 상반기 합동 항만안전 정기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수해양수산청이 주최하고 광양제철소가 주관하는 이번 정기 교류회는 제철소 안전방제그룹, 생산기술부, 제철반과 여수항, 동해항, 평택항 등 전국 7개 항만 점검관 및 제철소 하역업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교류회에서는 지난 2022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개선된 제품부두에 실제 도입된 사례들이 소개됐다. 후판 중량을 취급 시 작업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화전장치 개발과 슬라브 취급 시 수작업을 대체하기 위한 영전자식 마그네틱 크레인(후판물을 자석으로 들어 올리고 이송하는 장치) 도입 사례 등이 공유됐다.

또 제철소와 해양수산청이 제철소 부두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시설물 관리상태와 안전관리 현황 등을 평가했다.

박병준 여수해수청 항만안전 감독관은 "항만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작업점 운영과 항만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항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대현 광양제철소 생산기술부장은 "제철소 원료·제품부두에는 포스코 및 관계 수급사들이 다양한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교류회를 통해 안전 마인드 형성을 재확인 하는 등 안전 최우선에 목표를 두고 모든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jin@gwangnam.co.kr



로또 1등 13명...당첨금 각 21억4000만원

제116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9, 21, 24, 30, 33,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9'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13명으로 21억366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

치한 2등은 74명으로 각 625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514명으로 13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616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1만2545명이다.

전남 13개 시군, 버스 16개사 임단협 교섭

전남지노위, 전담팀 구성 등 적극 서비스 주효

전남지역 16개 시·군내버스 노사 임단협이 모두 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노동위원회

통해 전남 13개 시·군 16개사 버스 노사의 2025년 임단협 교섭이 마무리됐다.

타결지역은 여수(3개사)와 순천(2개사)·광양(1개사)의 시내버스6개사와 영광·구례·영암·무안·곡성·함평·화순·강

진·고흥·강진 군내버스 10개사다.

이들 노사는 임단협 과정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노조 측에서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노동쟁의를 조정신청했다.

전남지노위는 조정이 접수되자, 전담팀을 꾸린 후 대안 제시 및 필요시 조정기간 연장 등 지원을 실시했다. 유형별로는 노동위의 조정 합의 8개사, 노동위의 조정 안 수락 7개사, 노사 자율합의 1개사 등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